

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주시면, 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2. 11월은 <가정예배> 드리는 달입니다.

- 실천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 <가정예배>드리도록 합니다.

3. 기타 안내

- ① 다음주일(12월 첫주)부터는 주일오전예배 때 이사야강해를 시작합니다.
- ② 오늘 점심시간에 악기 연습이 있습니다.
- ③ 다음 주일(12월6일) 오후 예배 후, 청년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 ④ 12월 필독서는 다음주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 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현금

☐ 일반현금 : 국민은행 387-21-0060-940 (예금주/조호진)
 신한은행 308-12-390429 (예금주/조호진)
 우리은행 1005-901-708982 (예금주/언약교회)
 ☐ 예배당매입현금 : 국민은행 830502-04-176405 (예금주/조호진)

봉사
안내

	이번 주(11/29)	다음 주(12/6)
설거지	이병로, 이철영, 박의준	박준석, 이가원, 박민서
오후통독	유 일(요한계시록 19-20장)	천명재(요한계시록 21-22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COVENANT COMMUNITY CHURCH

섬기시는 목사-조호진, 임종훈 / 전도사-전진영, 노진호
 서울 관악구 인현동 181-6 현대아파트상가 (3층)
 ☎ 02-875-7760 http://www.unya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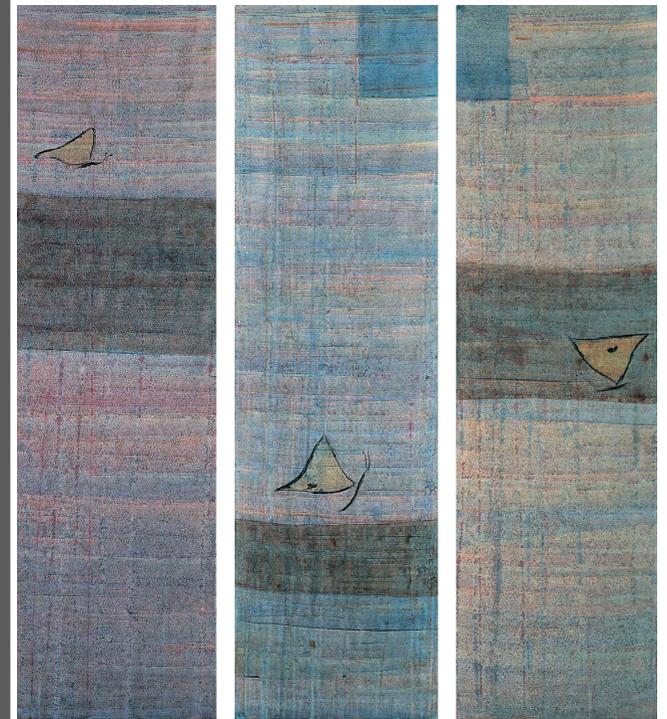
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

온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제자삼는 제자"가 되는 교회

http://www.unyak.org

제17-47호

2015년 11월 29일



주일	유 . 초등부	오후 1시30분
	중 . 고등부	오전9시30분 //오후1시3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 오후1시30분
주중	새벽 예배	오전 5시30분 (월~금)
	수요 예배	저녁 8시

주일 예배 순서

인도 : 조호진 목사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
 사도신경 일어서서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
 찬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다함께
 대표기도 한국인 형제
 성경 봉독 요나서 4장 1-11절 말씀 조형숙 자매
 말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임종훈 목사
 결단의 기도 다함께
 성도의 교제 다함께
 광고 인도자
 찬양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일어서서
 축도 조호진 목사

-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12/6)	2주후(12/13)
예배 위원	대표 기도	유 일 형제	천명재 형제
	성경 봉독	정찬미 자매	문수선 자매

성경 본문 (개역개정판-요나서 4장 1-11절 말씀)

- 0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 02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 03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 0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 05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 0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녕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던대라
요나가 박녕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 07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녕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 08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 0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녕쿨을 아꼈거든
-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